

GRACE 선교소식

2025년 3월 GMI-GKC 선교사 현황: 63개국 337명 (자체 파송 75%)

2025년도 세계선교 마무리를 향해!

GMI 총재 한기홍 목사

저는 성도님들의 기도 덕분에 LA 한인타운에서 북쪽으로 약 1시간 떨어진 벤추라 카운티에 위치한 브릿지 교회(담임 김재호 목사)에서 미주 노회에 참석하며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2025년 봄 노회의 주제는 “**믿음의 교제를 통한 회복**(빌레몬서 1:7)”입니다.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진정한 평안과 회복은 우리가 항상 주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머물며,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얻고 회복의 은혜를 경험할 때 이루어집니다.

첫날 개회 설교에서는 “**행복한 목회가 되자**”(시편 65:4-13)라는 말씀을 전하며, 행복한 목

회가 가능한 이유와 원리를 나누었습니다. 그 시간은 제 마음을 뜨겁게 하고 은혜로 충만하게 만드는 기도 시간이었습니다. 또한 성찬식을 통해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깊은 은혜를 받는 시간이었습니다.

총회는 은혜 중에 수요일 오전에 마쳤고, 저녁에는 교회에서 “지도자 자질론”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목요일에는 새벽 예배 후, 성도님들의 사업장과 환우분들을 심방하며 기도해드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녁에는 그동안 준비한 연합 그레이스 인카운터가 시작되어 첫 번째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2025년 새해 첫 번째 그레이스 인카운터는 그룹들이 연합하여 참여한 인카운터로, 90명이 참석한 캔디데이트와 8개 그룹에서 자체적으로 진행한 112명이 등록하여, 총 202명이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번 주일 예배 후, 그레이스 프리덤 사역을 마친 뒤, 저녁 비행기로 GMI 중남미 선교대회와 엘살바도르 중미 목회자 세미나 및 대형



한기홍 목사님 사역일정

- GMI 중남미 권역 선교대회: 3/24-3/27
- 엘살바도르 목회자 컨퍼런스: 3/28-3/30
- Grace Encounter
주말 수양회: 3/20~4/10

목사님의 사역 일정들 가운데 영육간의 강건함과 성령충만을 위해 기도해주세요.

전도 집회를 인도하기 위해 파나마로 출발합니다. 귀한 성도님들께서 기도해주시고, 늘 은혜 받으며 성령충만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탄자니아

정현우 / 정슬기 선교사

이음이의 건강과 수술 일정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동역자님들의 기도 덕분에 이음이는 유치원에서도 잘 적응하며 활발하고 건강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지난 2월 4일 새벽, 한국에서 연락을 받았습니. 원래 예정되었던 병원에서 수술이 어렵게 되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하지만 감사하게도, 담당 교수님께서 이음이를 포함한 여러 환자들이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병원을 찾고 계셨습니다. 결국 교수님께서 5월에 새로운 병원으로 이직하게 되면서, 그곳에서 수술을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현재 수술을 기다리는 환자들이 많아 빠르면 8-9월, 현실적으로는 10-11월쯤 진행될 가능

성이 있으며, 정확한 일정은 5월 이후에야 확정될 예정입니다. 이음이가 수술 전까지 건강을 유지하고, 필요한 준비가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비자 발급과 체류 일정

현재 탄자니아에서 비자 발급 과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관광비자로 체류할 계획이었지만, 귀국 일정이 조정되면서 장기 비자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예상보다 행정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걸리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 주실 것을 믿으며 차근차근 준비하고 있습니다. 비자가 원활하게 발급되고, 체류 일정이 안정적으로 조정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언어 훈련과 사역 적응

현재 현지인 교사에게 스와힐리어 수업을 받

으며 언어 훈련을 꾸준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언어는 단순한 소통의 도구가 아니라,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문화를 이해하며 복음을 전하는 중요한 다리입니다. 배우는 과정이 결코 쉽지는 않지만, 배운 표현을 일상에서 적용하며 조금씩 성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실수도 많고 답답한 순간도 있지만, 현지인들이 웃으며 이해해 줄 때, 그리고 조금씩 소통이 될 때마다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언어 장벽을 극복하고, 현지 문화 속에서 자연스럽게 사역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베네수엘라

김도현 / 강미애 선교사

베네수엘라 신학교

1월 19일부터 24일까지 5기와 6기의 120명의 목사님들을 모시고 올해 첫 모임을 했습니다. 특별히 이번에 입학하신 6기 목사님들이 큰 은혜를 받는 시간이었습니다. 마지막날 간증시간에 한 목사님이 목회를 포기하려 했으나 은혜 받고 다시 순종하기로 하셨다는 간증을 나누었습니다. 베네수엘라는 여전히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로 떠나는 성도들, 높은 물가로 인해 목회자 사역비는 커녕 교회 월세도 못 내는 상태로 인해 많은 목회자들이 사역을 포기해 문을 닫는 교회들이 속속히 나오고 있는 이 때에 우리 신학교를 통해 목사님들이 은혜 받고 끝까지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나갈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콜롬비아 신학교와 선교센터

올해까지 9년간 베네수엘라에서 콜롬비아를 오가며 사역하고 있습니다. 그간 많은 목회자 컨퍼런스에서 말씀을 전했고 그 때 은혜 받은 목사님들을 모시고 작년까지 4번의 목회자 사랑의 불꽃과 2번의 대학생 사랑의 불꽃을 섬길 수 있었습니다. 처음 목회자 사랑의 불꽃(TD)를 할 때부터 주님이 주신 비전은 언젠가 콜롬비아에도 신학교를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콜롬비아도 교단에 속하지 않고 혼자 목회하는 목사님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리고 현재 콜롬비아는 좌파 대통령으로 인해 경제와 치안이 점점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필요한 이때에 콜롬비아 신학교에서 목회자들이 은혜 받고 준비되어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목회를 할 수 있도록 섬기기 원합니다.

크신 하나님의 은혜로 올해 10월 10일에 1기



콜롬비아 신학교를 개강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신학교의 목사님들의 모집과 사역의 시작이 주님의 은혜와 인도하심 가운데 될 수 있도록 강력한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를 위해 헌신한 콜롬비아의 한 성도부부가 집회에 은혜를 받고, 본인의 땅에 신학교를 위해 선교센터를 건축하고 있습니다. 큰 사업을 하는 것도 아닌데, 본인이 하나님께 헌신한 것이라고 하며 작년부터 공사를 시작하였습니다. 저는 현재 콜롬비아 여러 사역을 위해 보고 타에 왔다가 방금 공사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부부가 눈물 흘리며 간증하길 건축하기로 결정한 이후 갑자기 사업이 잘 안돼 너무 어려워 건축을 포기할 뻔한 적도 있었지만 끝까지 순종하고 있던 터에 제가 방문해서 작년에 마이애미에 계시는 박권사님의 헌금을 전달할 수 있었습니다. 이 헌금을 통해 부부가 큰 격려와 함께 다시 한번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확신하고 계속 순종할 수 있음에 너무 감사드립니다.

10월에 신학교를 시작하기 위해선 적어도 7월에 외부 공사가 마쳐지고 그 후 내부와 음향 및 각종 기기들을 설치해야 하는데 이 성도가 힘을 다해 하지만 재정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저에게는 단 한 번도 재정을 도와 달라는 말을 하지 않고 묵묵히 일하는 모습을 보고



우리 동역자님들께 도움을 요청하기 원합니다.

자기 땅에 본인의 헌금과 헌신으로 콜롬비아에 신학교를 세우기 위해 힘을 다하는 이 사역에 함께 기도해주시고 건축헌금을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건축이 완료되면 이 선교센터는 콜롬비아 신학교만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저희가 베네수엘라서 하고 있는 모든 사역들(대학생 사역, 수련회, 집회, 훈련원 등)을 콜롬비아에서도 시작할 것입니다.

베네수엘라 선교센터에 역사하신 주님께서 또한 콜롬비아에 큰 일을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 해주시면서 콜롬비아 신학교 건축 헌금을 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메일이나 카톡으로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월 사역

콜롬비아에서 돌아온 후에 베네수엘라 신학교 졸업생 모임을 3박 4일간 합니다. 그리고 아마존에서 사역하고 있는 오랜 동역자인 조엘 선교사가 좋은 짝을 만나 결혼하는데 주례를 하기 위해 아마존에 다녀올 예정입니다. 그후에 3월 1일부터는 베네수엘라 대학생 4기 사랑의 불꽃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카라카스의 현지교회 아도나이는 조금씩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목회를 하는데도 주님의 지혜를 주시고 함께 동역하는 목회팀과 선교팀들이 주님 안에서 사랑과 은혜로 하나되어 영광 돌릴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어지러운 한국의 상황에 멀리 떨어진 이곳에서 같이 뜨겁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 베네수엘라, 콜롬비아뿐만 아니라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동역자님들이 계신 나라마다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의 부르심의 자리에서 순종하며 살기를 축복합니다.

M국

곽OO / 엄OO 선교사

개척 선교지에서 본격적인 선교사역을 위한 기반 사역으로 방과후 학교 운영을 위해서 필요한 사항과 보완해야할 사항을 파악하기 위해 방과후학교 시범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마

을 책임자 사모님과 여러 관계자 분들이 참석하여 주시고 마을 주민들께 다른 지역의 방과후학교가 운영되고 있는 모습을 영상으로 소개하였습니다.

아웅반 선교 담당 선교사님이 앞으로 운영될 아웅반 방과후학교에 대해 재미있고 쉽게 잘 설명하여 주민분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아웅반 교회의 모든 공간이 꼭 차고 학년별로 나누어서 수업이 진행됩니다. 아웅반 방과



후학교는 개척선교의 기초가 시작되는 선교사역의 출발선입니다.

인도

강명철 / 이지향 선교사

7기 졸업

뉴델리 사학교는 지난 2024년 11월 22일, 7기 20명의 학생이 모든 과정을 마치고 졸업을 했습니다. 그들이 말씀과 기도로 가정 교회들을 세워 나갈 수 있도록, 영육 간에 강건함과 성령 충만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교회의 필요성

졸업생들이 사역을 하면서 가정 교회들은 세워 갑니다. 세워진 가정 교회들에 핍박이 오면 모임은 없어지고, 또 다른 지역에 가정 교회를 세워 가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 성도들의 양육과 확장을 위해 교회건물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사학교 졸업생들을 위해 지금까지 5곳에 교회건물이 세워졌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졸업생들은 자신의 가정 교회 성도들로부터 건축을 위한 땅들을 후원 받으면, 기도하고 숙고한 후에 은혜회사의 도움으로 교회들이 건축됩니다. 주님을 예배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교회건축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부흥과 건축 계획

졸업생들의 영육 간에 강건함과 성령충만함을 위해, 그들의 안전과 사역하는 교회들의 부흥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또한 2025년 교회 건축 계획을 입니다. 힐라리우스(자르칸트 주), 구루짓 싱(편잡 주), 라홀(웨스트벵갈 주), 조라 싱(하리아나 주)으로 1기 졸업생 4명의 지역과 2기 졸업생 라즈 까푸르(유피 주), 그리고 현지인 윌리엄(편잡 주) 사장의 교회가 건축될 예정입니다. 주님의 선하신 뜻대로 예배 처소들이 마련될 수 있도록, 모든 일정들과 재정에 기름부어 주시길 기도해 주십시오.

8기 입학생

2025년 2월에 시작하는 사학교의 8기 사학교생 모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역에 은사가 있으며, 성령충만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들이 모집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8기생들이 훈련들을 잘 감당하고 믿음이 굳건하여 주님께 헌신된 주의 군사로 세워지길 원합니다. 이들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GIGL #9

매년 사학교 훈련이 시작되기 전에 실시하는 GIGL 집회는 어두운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GIGL 9기가 2월에 개최됩니다. 인도 사학교에서 GIGL은 나무에 비유하자면 꽃과 같이 아름다운 행사입니다. 참석하시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기쁨으로 위로를 받고, 믿음으로 주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는 천국잔치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강선생님과 저를 위해

저는 지난 겨울 오른쪽 발의 골절과 오십견으로 고생을 했습니다. 어깨 통증이 엄청 심한 것을 보며, 하나님께서는 아무 탈없이 오랫동안 건강을 지켜주고 계셨다는 것을 깨닫고 감사하게 됐습니다. 지금은 뼈 골절도 나았고, 완전히 자유롭지는 못하지만 어깨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저를 위해 기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사학교를 운영하며 주님의 선하신 뜻을 인도 땅에서 온전히 이루어 드릴 수 있도록, 성령충만과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한국

최광 / 나미연 선교사

아프리카 보츠와나와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든 새기 무브먼트 집회를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든새기무브먼트는 오직 "말씀을 듣고, 암송해 새기고, 본 어게인을 위해 기도"하는 집회입니다.

저는 지난 28년 간의 북한 선교사역을 통해 말씀과 기도의 현장엔 반드시 열매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무브먼트를 시작

하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지난 해 태국과 캄보디아와 중앙아시아 든새기 무브먼트에서는 단지 말씀을 읽고 암송하고 기도하던 가운데 귀신이 떠나가고, 병이 치유되고, 본 어게인과 신체의 회복이 일어나는 역사가 많았습니다. 또한 매 집회마다 수십명의 성도님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고 1년간 성경 통독과 암송 600절과 구약성경 10독, 신약 30독을 읽겠다고 결단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입니다. 말씀을 읽고 암송할 때에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든새기무브먼트를 통하여 성경읽기의 즐거움을 알고, 쉽고 확실하게 암송하는 방법을 배우고, 기도로 거듭남의 기쁨을 누리길 바랍니다.

2025년 3월 4~8일 보츠와나 집회. 3월 10~14일 남아프리카 공화국 집회에 말씀을 갈망하는 마음과 폭발적인 성령의 역사하심이 충만하기를 기도 부탁드립니다.

과테말라

최용준 / 최재숙 선교사

올해부터는 저희 GMI 선교의 사역영역이 과테말라에만 국한되지 않고 바로 옆 나라인 엘살바도르로 확장됩니다. 최근 엘살바도르 교회들이 저희 GMI의 선교 프로그램인 TD와 인카운터에 큰 관심과 뜨거운 반응을 보이고 있을 뿐만 아니라, GMI의 선교영성을 경험한 많은 교회 청년들이 회심하고 영적인 변화를 보이고 있어 엘살바도르에 청년들의 영적 부흥



이 강하게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로 TD와 인카운터를 경험한 많은 청년들이 저희 GMI 신학교에 2025년 신입생으로 입학했습니다. 앞으로 이 청년들이 주의 종으로 잘 양육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데 귀히 쓰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3월 말에는 중요한 두 행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중미(Central America) 목회자 컨퍼런스 및 전도집회(한기홍 목사님)가 엘살바도르의 수도인 산살바도르에서 열립니다. 그리고 또 다른 중요한 행사는 앞에서 언급한 대로 엘살바도르 선교사역이 활발해짐에 따라 드디어 엘살바도르에 GMI 선교센터와 현지인 교회인 La Gracia San Salvador 교회(산살바도르 은혜교회)가 세워집니다. 3월 30일 주일에 창립예배를 드릴 예정입니다. 이 장소가 결정되기까지 하나님의 놀라운 간증과 인도하심이 있었습니다. 이 처소가 앞으로 엘살바도르를 정점으로 중미 교회연합 사역의 전초적 영적기지가 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요단강을 가르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기억하기 위해 12돌을 쌓았던 것처럼 이 GMI 엘살바도르 선교센터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간증하며 기억하는 “길갈”의 장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기도를 요청합니다.

그리고 센터건물은 주셨지만, 예배당과 식당, 사무공간 등 센터운영에 필요한 것들이 아직



까지 아무 것도 준비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예배당 리모델링과 음향, 악기, 각종 비품 등 앞으로 많은 것들을 준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돕는자들을 붙여주시리라 믿습니다. 창립예배까지 한 달 남짓 남은 기간 안에 모든 필요한 예산들이 채워질 수 있도록 기도를 요청합니다.

오늘 아침 묵상중에 하나님이 주신 “너희를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요14:1) 라는 말씀 한 구절에 힘을 얻습니다. 이 말씀 굳게 붙들고 아무 염려하지 않고 주님의 하실 일을 기대하면서 오늘도 묵묵히 주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최재숙 선교사의 류마치스 관절염이 여러분들의 중보기도에 힘입어 많이 호전되었습니다. 그동안 기도해주신 많은 기도 동역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미국

김OO / 조OO 선교사

모든 안식일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계속해서 노숙인을 섬겼습니다. 음식을 준비하였고 맛있는 음식과 옷, 코트, 셔츠를 모아 노숙인에게 공급했습니다. 정말 기쁘고,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 일입니다. 길거리에서 자는 사람들의 마음도 따뜻해집니다.

이러한 가족을 갖는 건 얼마나 아름답고 즐거운 일인가요. 우리는 야채와 닭고기가 풍부한 맛있는 수프 한 솥단지 가지고 갔습니다. 우

리가 도착했을 때, 사람들은 이미 입구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날은 춥고 비오는 날이었는데 그래서 사람들은 배고프고 추워서 우리를 기다렸습니다. 이 사람들은 한두시 산이라도 잠시나마 위안과 평화를 누렸습니다.

그날의 흥미로운 점은 음식을 먹은 모든 사람들이 그것이 얼마나 맛있었는지, 얼마나 좋았는지 자주 말했다는 것입니다. 수프를 먹으려 온 게 얼마나 맛있었는지. 음식을 먹으러 온 노숙인들이 서로를 돌아보고 나눠먹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곳에 올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해 2~3인분을 국그릇에 담아가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노숙인의 처지에도 그들은 음식으로 서로를 돌보았습니다.

주께서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중요한 복음적 대화가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대화를 사랑하시고, 주께서 사람들의 마음을 두드리실때 그저 마음의 문을 열고 받아드리길 원하심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그들을 위해 기도할 것입니다. 함께 기도로 그들을 섬겨주십시오.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이 매번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와주셔서 정말 기쁘네요.”

이 특권을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주의 은혜가 넘치는 축복이 함께 하시길 소망하며 미국과(휴전중에도 테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중동의 평안이 속히 임하길 소망합니다.

캄보디아

김영대 / 조정아 선교사

새소망교회 공동체

순천순동교회와 창원왕성교회에서 단기선교를 다녀왔습니다. 마을을 다니며, 우리 성도님들과 선교팀이 함께 복음을 전하였으며, 함께 기도와 찬송과 말씀을 나누며 은혜로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특히 뿌람바이차움 새소망교회의 화장실이 노후되고, 작아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순동교회에서 화장실 두 칸을 지을 수 있도록 헌금을 하였고, 낡은 전등을 교체하는 작업을 하였습니다.

추운 한국에서 더운 캄보디아로 오셔서, 수고하고 땀을 흘리시며, 연신 웃음을 잃지 않으시는 모든 팀원과 캄보디아와 세계선교를 위해 동역하며 물질로 기도를 함께 하시는 모든 교회와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세워진 교회들이 말씀 위에 든든히 세워져 나아가길 기도드립니다.



새소망 방과 후 학교 / Light & Salt 장학생

캄보디아의 공교육은 아직 많이 약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 새소망 공동체에서는 각 사역자중심으로 방과후 학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에게 캄보디아어와 영어 등을 가르치고 배움의 진보가 있고, 그들이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학교 정규 수업 후 보충수업을 받는데, 정규

수업은 무료로 교육을 받지만, 보충수업은 수업료를 내야 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보충수업비를 장학금으로 주고 있습니다. 또한, 특별 장학생을 선발하여 좋은 학교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후원하고 있습니다. 선교는 결국 사람을 세우는 일이고, 그 사람이 나라와 민족을 변화시키리라 믿기 때문입니다. 방과후 학교와 빛&소금 장학생들이 말씀과 지식으로 자라나, 하나님 나라에 쓰임 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길 소망합니다.

캄보디아 장로교 신학교

캄장신은 새로운 학기를 맞이하여 교강사들과 모든 학생이 열심히 가르치고 배우고 있습니다. 캄장신은 프놈펜 본교와 시엠펙본교 그리고 캄퐁툼과 캄퐁츠낭의 분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본교와 분교에는 정규과정을, 분원에서 신학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교회 사역자들을 중심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바른 신학과 말씀을 배워 우상과 거짓 신앙과 이단들을 넘치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나가는 우리 학생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말씀 암송 운동

(Bible Memorization Movement)

듣새기(듣고, 새기고, 기도하라)의 일환으로 말씀 암송 운동(BMM)을 진행 중입니다. 2006년부터 캄에서 사역을 하면서, 말씀과 기도로 훈련된 이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킬 수 있다는 생각으로 사역을 해 왔습니다, 그러다 2024년 9월에 듣새기 집회를 하면서 신학교와 새소망교회 그리고 캄보디아 25개 주 전역에 말씀 암송 운동을 펼치고자 결단하고, 기도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지방교회에 가서 세미나를 열고, 말씀 암송의 중요성과 유익함을 나누고, 누구나 암송을 할 수 있음을 훈련을 통해 가르치고 있습니다. 특별히 각 교회의 사역자들인 신학생 중에 제가 가르치는 학생들을 중심으로 암송 훈련을 시키고 있습니다.



다. 지금 30여 명의 신학생이 100절 이상을 암송하면서, 그들의 삶에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각종 SNS, 유튜브에 중독되었던 이들이 말씀으로 돌아오고, 내적치유와 믿음의 담대함을 얻어가고 있습니다.

말씀의 부흥이 캄보디아 전역에 퍼져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올네이션 학교

올네이션 학교에 이번 고등학교 졸업생들이 전원 대학에 입학하였으며, 특히 고등학교 졸업시험에 A를 받아(상위4%이내) 학교의 위상이 많이 높아졌습니다. 유치원에서 초중고에 이르기까지 모든 학생이 올네이션 학교를 통하여 지식을 습득하고, 예수님을 만나, 구원을 받고, 그 가정과 이 사회를 살리길 소망합니다. 특별히 모든 교사가 말씀 훈련과 예배를 통하여 믿음이 든든해지고, 사명감으로 학생들을 가르치길 소망합니다. 또한, 비록 불교국에서 기독교 학교라고 알려졌지만 좋은 소문이 나고, 자녀들을 보내고 싶은 학교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신입생들이 모집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조정아선교사가 교장직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역량과 지력과 체력을 위해 기도부탁드립니다.



멕시코

송두선 / 양정연 선교사

멕시코 송두선 양정연 선교사 사역 보고 드립니다. 먼저 하나님과 영광을 돌려 드리며,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의 기도와 후원에 감사드

립니다.

이곳 멕시코 북부 지역, 몬테레이에서 지난 5개월 동안 제자 양육과 전도를 통해 믿음, 소망, 사랑이라는 교회지도자들이 이번에 32명이 졸업식을 가졌습니다. 이들을 시작으로 이곳 멕시코 북부 지역, 공업지역에 더 많은 열매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기를 위해 기도부탁드립니다.



간증문

2025 Africa (Tanzania, Kenya) Vision Trip

백미영 권사 / G28

아프리카를 간다고 하니 주변에서 놀라움과 함께 우려의 목소리들이 들려 왔습니다. 왜 굳이 거기까지 가느냐고, 가는 길도 어렵고 가서는 더 어려울텐데 마음 바꾸라고... 그런데 웬지 가야만 할 것 같은 마음이 계속 들었고 한편으로는 남편에게 맡겨 주신 사역지이니 함께 돌아야 한다는 의무감도 있었습니다. 선교 현장에서 보내 주신 아프리카 아이들의 눈망울을 본 순간에는 가기로 결정한 것이 잘했다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그 아이들이 보고 싶었고 그들을 가르치는 선교사님과 사모님들에게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어 드리고 싶었습니다. 프로그램을 가지고 가서 그 지역만 마치고 돌아오는 일정이 아니라 현장에서 선교사님들과 함께 생활하며 겪고 보고 나누게 될 일들에 대한 기대가 기도를 할수록 커져 갔습니다. 물론 좋은 소리들만 들리는 것이 아니었으나 “육체의 지혜로 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하라”는 말씀을 의지해서 기도하며 아프리카 여정은 시작되었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기나긴 비행이었습니다. 첫 비행 16시간, 8시간 Lay Over, 다시 6시간 비행을 해서 탄자니아 킬리만자로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일행 모두는 그 기나긴 시간이 지루하거나 어렵다고 생각하지 않았고 무사히 도착하여 마중 나오신 선교사님들을 뵈는 것이 그저 기쁘기만 했습니다. 준비 기도, 그리고 중보 기도가 첫 발걸음부터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후원금으로 땅을 사신 선교사님들은 키만큼이나 큰 풀들을 자르는 일부터 시작해서 땅을 일구어 가셨다고 합니다. 허허벌판에 텐트를 치고 자녀들과 지내며 수개월을 개척하고 개간



하며 건축을 하고 학교를 지어 아이들을 교육하기까지 그 분들이 흘렸을 땀과 수고를 생각하니 저절로 고개가 숙여졌습니다. 문맹율이 높은 그 곳에서 종교의 한계에 부딪히면서도 물러서지 않고 오히려 교육열을 통해 그들의 종교를 뛰어 넘는 지혜가 선교사님들에게 있었습니다. 히잡을 쓰고서도 성경 구절을 암송하고 찬양을 하면서 매일 예배를 드리는 어린 학생들을 보며 그 땅의 미래가 어둡지만은 않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전히 선교사님들을 향한 현지인들의 도전은 매일매일 성난 파도처럼 엄습했습니다. 자식처럼 아끼고 키워 왔던 제자들로부터의 배신, 해고된 선생님들의 고소, 주변 사람들의 땅뺏기에 이르기까지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평안하게 넘어가는 날은 많지 않았었습니다. 내리쬐는 햇빛에 썬크림을 발랐지만 한 시간도 못되어 땀으로 범벅이 되어버리는 날씨인데 전기가 끊어지기 일쑤이고, 빗물을 받아 저장해서 사용하는데 때론 비가 오지 않아 물탱크마저 바닥이 나버릴 때도 있다고 합니다. 수돗물을 틀어놓고 양치를 하던 버릇을 고치고 손에 비누를 묻히는 순간에도 물을 잠그며 아껴 보았습니다. 그렇게라도 선교사님들의 마음을 헤아리려고 애써 보았습니다. 눈물겨운 하루하루의 투쟁에서 선교사님들은 “선교는 기도, 선교는 전쟁, 선교는 순교”를 시간시간 살아내고 계십니다. 그렇게 매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아프리카 어린이들을 키워오셨지만 정작 본인들의 자녀에게는 크나큰 상처를 안겨주는 아픔이 있음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내 나라를 떠나야 하는 선교사님들에게 자녀들의 희생은 필수처럼 여겨졌고 처절한 기도의 몸부림으로 그 고통을 감내하며 버티고 계시는 모습이, 같은 부모로서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그 땅의 사람들을 사랑하여 섬기지만 쉽게 배신하고 돌아서는, 혹은 더 달라고 달려드는 그들을 향해, “베풀되 절제해야” 하는 선교사님들의 심정을 들으며 외부적으로도, 내면으로도 계속해서 갈등을 겪는 모습은 날마다 무릎 꿇지 않고는 극복되어질 수 없는 삶이었습니다.

함께 예배드리며, 운동회를 하며 친근하게 다



가오는 어린아이에게 손을 내밀다가 나도 모르게 바로 손을 거두어 들이며 ‘이러면 안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는 제 모습에 당황스러웠습니다. 손을 잡고 눈을 마주치고 안아주는 일들을 자연스럽게 하지 못하는 것에 죄책감이 들었던 것입니다. ‘이거 밖에 안되는 사람이었나?’라는 마음 때문에. 그런데 속소로 돌아오자 선교사님이 “아이들하고 손 많이 잡으셨으니 비누로 깨끗이 닦으세요. 아이들이 어떤 병이 있을지 모르거든요”라고 하셔서 미안한 마음이 조금 가시기는 했지만 그래도 마음이 편치만은 않았었습니다.

소망이나 희망, 미래라는 말조차 이들에게는 버거운 단어임을 보았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문화와 부딪치며 겪는 갈등 속에서도 복음으로 소망을 심어주는 일을 포기하지 않고 도전하는 선교사님들의 삶에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번 선교 탐방을 통해 우리 팀에게 무엇을 원하실까를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남아 놓고 18년 동안 혼자 잘 크라며 버려진 것 같았다’는 눈물의 고백을 들으며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 곳에서 하고 싶고, 해야 할 일들이 많은 그 분들과 사역을 위해 이 곳에서 물질로, 기도로 함께 할 동역자들을 동원할 수 있도록 많이 알려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한 저희 자녀들에게 이번 여행에 대해 나누며 그들에게도 선교에 동참할 기회를 제공할 수 있게 되어서 더욱 이 비전트립을 감사로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었습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가신 선교사님들을 응원하고 감사를 표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 함께 하는 선교를 감당하는 것, 그 일을 위해 애써 보겠습니다. 이 일을 꿈꾸게 하시고 이뤄 나가실 주님께 감사 드리고 기도하며 기대합니다.

기도제목

선교지와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해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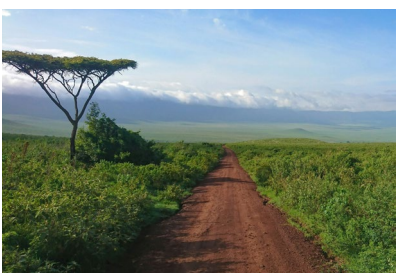
과테말라 최용준 / 최재숙 선교사

1. 기도와 말씀으로 늘 성령충만하여 주님만 바라보며 사역 감당할 수 있도록
2. 엘살바도르 GMI 선교센터 창립에 필요한 모든 예산이 채워지도록
3. 2025년 3월말 중미 목회자 컨퍼런스 및 전도집회가 잘 준비되도록
4. 2025년 GMI과테말라 신학교 운영이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5. 중미 교회연합 사역에 부흥이 있도록(니카라과/온두라스 개척사역)



캄보디아 김영대 / 조정아 선교사

1. 새소망교회와 캄보디아 25개 주에 말씀이 흥왕하여 부흥의 강물이 흐르게 하옵소서
2. 캄장신 모든 교강사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시고, 악한 영들을 제압하는 능력이 학생들과 교강사들에게 늘 함께 하옵소서
3. Light & Salt 장학생(현재 51명/지난달 대비 4명+)들이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해 하나님의 나라에 쓰임 받는 이들이 되게 하소서
4. 말씀암송운동(BMM)이 캄보디아 25개 주 전역에 일어나게 하옵소서
5. 올네이션학교 학교의 섬기는 모든 교사와 조정아선교사를 통하여 더 부흥하고 학생들의 지혜와 믿음이 자라게 하시고 소문난 학교가 되게 하옵소서
6. 저희 부부와 자녀(성훈, 성빈)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게 하옵시고, 주의 주신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돕는 자를 붙여주시고, 함께 동역하는 모든 교회와 성도들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옵소서



탄자니아 정현우 / 정슬기 선교사

1. 이음이가 수술 전까지 건강을 잘 유지하고, 수술이 가장 적절한 시기에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2. 비자 발급 과정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체류 일정이 안정적으로 조정될 수 있도록
3. 언어 훈련이 지속적으로 진행되어 언어 장벽을 극복하고, 사역과 현지 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4. 영적 싸움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I 국 김OO / 조OO 선교사

1. 아비엘이 주님의 신실한 제자가 되도록, 알렌 목사가 사역을 잘 감당하도록, 저희가 영육에(아내의 건강)강건하고 주님의 지혜로 모든 일을 잘 감당하도록
2. 큰아들 은상이가 직장을 잘 마무리하고 대학 신입생으로 학교에 잘 적응하도록, 군대에 있는 수와준이(다음달 한달 먼저 병장진급) 모두 건강하게 분대장 역할을 잘하게 하시고 I국의 은도, 은교가 건강과 지혜로 학업을 잘하도록

기도제목

선교지와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해주세요.

시리아 라타키아 소식 및 긴급 기도 요청

현재 시리아 라타키아에서 끔찍한 학살이 벌어져 수많은 생명이 희생되었습니다. (만명이상) 극도의 공포 속에서 외출조차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 크리스천들의 기도가 함께하고 있다는 소식에 현지 성도들이 큰 위로와 힘을 얻고 있습니다.

1. 라타키아 지역의 안정과 회복을 위해 - 두려움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평안이 임하도록
2. 현지 사역자들과 교회 공동체를 위해 -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보호하심 안에서 굳건히 서도록
3. 통신과 교통의 회복을 위해 - 원활한 소통과 필요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4. 글로벌 교회의 연합된 기도를 위해 - 전 세계 성도들이 지속적으로 중보하며 함께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 땅을 긍휼히 여기시고, 모든 두려움을 평강으로 바꾸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선교부 광고

1. 진행 중인 선교사역

- GMI 중남미 권역 선교대회
 - 엘살바도르 목회자 컨퍼런스 및 전도집회
- 이번주에 진행되는 단기선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주세요

2. 단기 선교 일정과 모집 안내

- S국 교회개척 (4/8-4/17)
리더: 김은주 사모
문의: 이석원 집사 (714-401-3222)
- 인도 전도 폭발 (4/20-4/30)
담당 교역자: 이민 목사
문의: 신사무엘 집사 (626-216-9900)
- J국 교회개척 및 선교지 방문 (4/27-5/6)
S/L: 최요셉 선교사
리더: 이민희 집사 (213-268-8558)
문의: 조규진 집사 (562-922-0154)
- 터키 MEGL#15기 (4/20-5/1)
S/L: 한기홍 목사
렉터: 남상우 집사
문의: 이정호 집사 (213-500-7939)

- 브라질 AFA #17 (4/28-5/5)
S/L: 송중호 목사
렉터: 김요셉 집사
문의: 김수영 집사 (213-446-9514)

- 인도네시아 개척선교 및 신학교 사역 (5/9-5/17)
문의: 홍호철 장로 (562-900-4202)
총무: 이정호 집사 (213-500-7939)

- 필리핀 개척 전도 및 비전 캠프 (5/27-6/2)
리더: 이창석 집사 (213-598-8845)
총무: 최혁운 간사 (909-251-0087)

- 가족과 함께하는 필리핀 VBS (6/1-6/8)
리더: Jackie Yu 전도사 (909-967-4626)
총무: 최혁운 간사 (909-251-0087)

3. 의료선교국 주일 상담

매주 주일 10:00 - 11:15 AM
문의: 의료선교국

4. 이스라엘 회복과 부흥 및 쥬빌리 구국기도회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 장소: WPC
문의: 현민정 목사 (714-732-2636)

5. 선교부 디보션 일정

매월 2, 4째주 주일 9:00 AM

6. 온라인 선교지 소식

WWW.YOUTUBE.COM/
@GMIMMISSION

WWW.FACEBOOK.COM/
GMIMMISSION

